

최초, 그리고 최고의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 개론서

정기문*

[서평] 박홍식(2024), 『중세와 그리스도교: 중세는 신앙이 지배한 시대였는가?』, 홍성사, 535쪽

1. 최초의 개론서

그리스도교는 서양 문명, 특히 서양 중세 문명의 제1원소다. 성기(盛期) 중세에 모든 유럽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교 신자였다. 그들은 7성사를 통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 생활하였다. 누구든 교회의 지도를 거부한 자는 죽음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사회의 권위와 에너지가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작동하였다. 그리스도교의 우두머리인 교황은 온 유럽의 군대를 동원하여 십자군 전쟁을 주도하였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였다. 학자들은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술가들은 그리스도교 성당을 건축하고 성물을 만드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다. 그리스도교는 중세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흔히 르네상스 시대를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중세와 그리스도교』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그것은 서양 근대의 몇몇 지식인들이 만들어 낸 허상이다. 르네상스 시대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교적 열정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15~17세기 서양인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쏟린 분야가 종교이었다. 그들이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이나 종교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이

*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서양 중세는 물론 서양사를 알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교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는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를 종합적으로 다룬 개론서가 없었다. 중세 전체를 다룬 개론서가 여러 권 출판된 것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었다. 개론서는 어떤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나침반이나 등대와 같은 것이다. 그 분야의 주요 사건, 제도, 인물, 시대적 배경, 다른 문화나 시대와 비교했을 때의 특징 등을 기본적으로 안내한다. 개론서가 없다 보니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엉터리 지식에 매달리기 일쑤였다. 중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시중에 너무나 넘쳐났다. 우리는 마치 플라톤이 제시한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같았다.

이 점에서 박흥식 저, 『중세와 그리스도교』의 출판은 우리나라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사 연구에 획을 긋는 사건이다. 그간 신학자들이 쓴 교회사 책은 있었지만 역사학자가 쓴 것은 최초다. 신학은 신앙의 관점에 기초하기에 신학자가 쓴 글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신학자들이 쓴 글에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전문적인 신앙 용어들이 가득한데 반해서 사건, 인물, 제도의 시대 배경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역사학자는 ‘사건, 인물, 제도의 시대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당대 사회의 환경 전체 가운데 의미를 짚어 낸다. 따라서 역사가의 글은 ‘전체로서의 역사’다.’

이 책은 콘스탄티누스의 전환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15세기 까지 그리스도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 사건, 제도, 시대 전개가 모두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역사 연구에서 한 분야의 개론서를 쓰는 일은 영혼을 갈아 넣은 일이다. 너무나 많은 사건, 인물, 지명을 소화해야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필자는 졸작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서양 고대사』를 쓰면서 그 고단함과 능력의 부족함을 통감하였다. 필자는 능력의 부족함을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채웠다. 여러 사람에게 불쑥 전화해서 물어보기를 수십 차례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은 계속 나오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점에서 『중세와 그리스도교』를 쓰는 일은 훨씬 더 고단했을 것이다. 이 책은 로마 말기의 종교 지형도, 그리스도교 신학 논쟁들, 그리스도교 변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들의 성쇠, 소아시아에서 북유럽까지 중세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의 정치적 변화, 이슬람 문명과의 관계, 중세의 건축과 기후와 인구 변화, 중세 말 세속 국가들의 성장까지 모두 다루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중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룬 종합 개론서이다.

만약 누군가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 역사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콘스탄티누스의 전환과 그 후 전개된 국가와 교회의 관계, 아리우스파가 게르만족에게 전파된 경위, 교황 제도의 성립, 아일랜드 교회가 내륙을 선교했던 경위, 동서방 수도원의 차이, 카롤루스조와 교황의 관계, 카롤로스조 르네상스, 서양 왕들이 도유식을 치르게 된 경위, 교황권의 변동과 선출 제도의 변천, 성상 파괴 논쟁과 그 결과, 신성로마 제국과 교회의 관계, 서임권 투쟁과 그 경과, 수도원 개혁 운동, 그리스도교의 동유럽과 북유럽 전파, 12세기 르네상스의 실체, 중세 대학 제도의 변천, 십자군이 처음에는 프랑크인이라고 불린 사연, 야고보가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된 이유, 중세의 여러 이단들의 교리, 페스트와 같은 중세의 주요 사건이 그리스도교에 끼친 영향 등등.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작품을 쓴 저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학문적 능력에 감탄한다.

2. 최고의 개론서

한 분야에서 처음 나온 것은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인물, 사건, 제도에 대한 서술의 정확함이 뛰어나고, 사건, 인물, 제도,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감동을 줄 정도로 빼어나다. 필자는 30년이 넘도록 서양

사를 공부했고, 심지어 20년이 넘게 서양 중세사를 강의하였다. 강의를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서양 중세사에 관련된 책을 빠짐없이 읽었다. 내심 서양 중세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교 분야에서는 전공자 못지않게 잘 안다고 자부하였다. 이 책은 필자의 자만을 여지 없이 깨뜨렸다. 이 책을 읽고 필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동굴 안에 갇혀 사는 외눈박이이었음을 깨달았다.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싶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 형성사에서 핵심은 그리스도론이었다. 325년 이전에는 예수가 인간인지, 신인지를 두고 논쟁이 진행되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예수가 성부 하느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예수가 삼위의 한 분, 즉 완벽한 신이라면, 그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성품(인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긴 논쟁이 시작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 형성을 주도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을, 안티오키아 학파는 인성을 강조하였다. 흔히 인성을 강조한 안티오키아 학파는 예수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이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산이다. 예수가 완벽한 하느님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인정한 기본 명제이었다. 그렇지만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에게는 인성도 존재한다. 안티오키아 학파는 그 인성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티오키아 학파의 네스토리우스가 논쟁을 일으켰다. 430년경 네스토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마리아를 ‘하느님을 낳은 자’라고 부름으로써 예수의 인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네스토리우스에 따르면 만약 예수가 하느님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예수의 인간으로서 속성이 약해진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함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정통 교리가 훼손될 수 있었다. 따라서 마리아는 ‘하느님을 낳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은 자’이다.

네스토리우스는 공의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주장하였

다. 이후 논쟁이 신학을 떠나 정치의 영역으로 비화하면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판결되었다. 오늘날 다수의 신학자들은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은 정통 신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이후 네스토리우스파가 동방 지역으로 전파된 것은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박해를 받은 네스토리우스 추종자들이 동방으로 이주하였고, 그 결과 중국에까지 네스토리우스교가 전파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이 책은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430년 이단으로 판정받은 후 네스토리우스파는 로마의 적국이었던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접경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였다. 6세기에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전쟁이 격화되었고, 이때 포로가 된 네스토리우스파 신자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들이 사마르칸트, 부하라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그리고 멀리 중국에까지 네스토리우스파의 신앙을 전파하였다. 그들의 선교가 큰 성공을 거둔 결과 781년 당나라 수도 장안에 ‘대진 경교 중국 유행비’가 세워졌다. 따라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 전파된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가 아니라, 사산조 페르시아의 박해를 받아서가 더 정확하다. 『중세와 그리스도교』를 읽지 않았다면 필자는 계속 잘못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한 개론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물론 현대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동서 교회의 분열은 핵심 주제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크게 보면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의 세 종파가 있다. ‘가톨릭’은 2세기 안티오키아 교회의 이그나티우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보편 교회라는 뜻이다. 1세기 말부터 그리스도교 세계에는 정통 교회를 벗어난 ‘이단들’이 발흥하였고, 정통 교회는 자신들은 다수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보편적으로 신봉하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카톨릭코스’(catholicos)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특정 종파를 가리키지 않는다. 실상 현대의 거대 세

종과 모두 자신들이 진정한 가톨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동방 정교회는 스스로를 ‘정통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고, 개신교 가운데 하나인 성공회(聖公會)는 ‘거룩한 공교회’(Holy Catholic church)라고 부른다. 대개 일반인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가톨릭이라고 하면 로마 가톨릭교라고 오해한다.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떤 것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핵심 요소다. 하여튼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는 본디 하나였다. 그리스도교 세계의 단일성은 1054년에 비로소 깨졌다. 이 해에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가 서로를 파문했고, 그 후 지금까지 두 교회는 별도의 종파로 존재해 오고 있다.

로마 교회와 서방 교회가 서로를 파문하여 별도의 교회로 성립한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리스도교 역사를 다루는 모든 책에서 이 사건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두 교회가 갈라진 핵심적인 이유는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의 수위권 경쟁, 성상 존송 여부, 필리오케 논쟁이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려면 단연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의 수위권 경쟁이다. 두 교회의 우두머리는 서로 자신들이 높다고 끊임없이 경쟁하였다. 이는 신학을 넘어서 정치·사회적 영역의 수많은 이권을 좌우하는 것이었기에 늘 현실적으로 중요하였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필리오케 논쟁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범인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교리인데, 정통 교회는 정통 교회와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을 펼치는 자들을 단호하게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논쟁의 출발점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에서 출발한다. 이 신조에 따르면 삼위인,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은 모두 성부로부터 발현하였다. 그런데 서방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라틴어로 필리오케(filioque) ‘즉 그리고 아들(성자)로부터’라고 표현하였다. 동방 교회는 삼위일체에 영향을 주는 이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고, 서방 교회와 계속 논쟁하였

다. 이 논쟁은 동서방 교회가 갈라서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두 논쟁에 비하면 성상 숭배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성상 숭배는 성인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교리와 배치될 소지가 있다. 726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레온 3세가 성상파괴령을 내렸을 때, 그리스도교 세계는 격심한 논쟁의 시대를 맞았다. 로마 교황이 극렬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논쟁이 너무나 치열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따라서 성상 숭배 여부가 동서 교회 분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리스도교 역사는 물론 서양사를 다루는 개론서들이 동서 교열의 핵심 요인은 성상 숭배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869~870)가 성상 파괴자를 이단으로 선고했고, 결국 성상 숭배 전통이 동방 교회에서도 불가결한 흐름으로 확립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1054년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격렬하게 대립할 때 성상 숭배 여부는 논란거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성상 숭배 문제는 200년 전에 이미 해소되어 버렸기에 동서 교회가 분열하는 데 있어서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는 상식이나 얕은 지식을 전하는 개론서의 권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밖에도 ‘중세와 그리스도교’가 바로잡아 주는 잘못된 상식이 많다. 가령 대다수 사람들은 아리우스파가 325년 이단으로 판정받고 로마 제국에서 쫓겨나 게르만 지역에 선교하면서, 게르만족이 아리우스파를 신봉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아리우스파는 니케아 공의회 이후 곧 복원되어 주도파가 되었다. 아리우스파는 로마 황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게르만족에게 선교 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게르만족이 아리우스파를 채택했던 것은 아리우스파가 박해를 받아서 피난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책은 이렇게 중세 그리스도교에 대한 거의 모든 주제를 심도 있게, 그것도 전문 연구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다루었다. 한 개인이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룩했다는 것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래도 아쉬운 점

이 책은 서술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시각의 관점에서도 모범적으로 신학이 아니라 역사학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중세 그리스도교에 대한 저술은 복잡 난해한 신학 논쟁으로 흐르기 쉽다. 그런데 이 책은 신학적인 논의들을 매우 절제하여 다루었다. 그것도 논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전공자인 필자도 읽고 나면 금방 혼란스러워서 포기한 주제들을 이 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은 필자의 개인적인 신앙을 채색하지 않았다. 가령 저자는 그리스도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성립과 팽창 과정을 객관적으로 다루었다. 저자는 이슬람의 팽창 과정을 서술하면서 폭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책에 따르면 이슬람의 진정한 역량은 “군사적 능력보다 피정복민을 이슬람으로 동화시킨 힘에 있었다.” 신앙의 관점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지향한다는 관점은 카롤루스에 대한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카롤루스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자, 유럽을 만든 아버지로 추앙받는다. 지금도 유럽의 통합에 기여하는 인물에게 카롤루스 상이 수여된다. 저자는 카롤루스의 긍정적인 업적을 서술하면서도, 그가 잔인한 정복자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정복 과정에서 카롤루스는 잔인한 학살을 감행하였다. 가령 803년 베르텐이라는 도시에서는 하루에 4,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 그의 그리스도교 전과는 그런 잔인한 피흘림의 대가였다.

이렇듯 이 책은 서술의 정확성과 시각의 객관성에서 흠잡을 때 없이 빼어난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있다. 먼저 이 책은 ‘중세는 신앙이 지배한 시대였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화두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서양 중세에 7성사로 대변되는 성례전 체제가 확립되어 신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기반이 신앙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 체제가 전 유럽에 걸쳐 확립되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통념은 거대한 호수의 표면일 뿐이다. 이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 지식인이 만들어 낸 중세에 대한 오개념이 자체 증식하고, 서양 중세가 남긴 기록이 대부분 지식인들이 남긴 것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 생겨난 ‘겉보기 모양’이다.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미시사, 문화사 연구는 그동안 주류 연구에 들지 못했던 민중 문화를 부각하였다.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중세 내내 민중들은 다신교적이고 주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으며, 교회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인 문화를 이어 갔다. 엠마누엘 르루아 라뒤리가 『몽타이유: 중세 말 남프랑스 어느 마을 사람들의 삶』에서 밝혔듯이 ‘그리스도교적 중세’는 하나의 신화였다.

이는 중세의 본질적 성격을 고민하는 전문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식이 되었다. 자크 르 고프가 ‘서양 중세 문명’에서도 이 요소들을 지적하였고, 유희수는 ‘낮선 중세’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필자도 25년 전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중세의 민중 문화, 중세 그리스도교 문화의 혼합적 성격, 기층 문화의 강한 생명력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읽었기에 이 책은 의미 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동감하였다.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책은 다소 용두사미의 서술을 하고 있다. 필자는 ‘중세와 그리스도교’의 부제나 서론을 생각했을 때 본문에서도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 책도 일정 부분 이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교황권의 성쇠 문제에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세에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시기는 매우 짧았다. 기껏해야 1100년에서 1200년경까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중세와 그리스도교』는 중세 초 교황은 동로마 황제로부터 독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카눛사의 굴욕으로 알려진 사건을 중심으로 서임권 투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하인리히가 경험한 굴욕적인 사건은 통상 언급되듯이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우월함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카눛사 굴욕을 계기로 유럽 세계의 주도권이 황제에게서 교황으로 넘

어간 것일까? 이 사건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글도 적지 않지만 카놉사 사건 이후 전개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 책은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카놉사 굴욕 이후의 정치사를 다루면서 1100년경까지도 황제권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교황권이 절정에 도달했던 것은 인노켄티우스 3세 재위기 전후의 짧은 시간이었음을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저자의 이 서술은 돋보이는 몇몇 사건들에 집중하여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일반인의 오류를 바로잡는 적절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세 그리스도교 문화의 성격에 대한 서술에서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진다. 『중세와 그리스도교』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령 이 책은 중세 그리스도교 신앙의 한 축을 이루는 ‘성인 숭배’의 기원과 역할을 설명하였다. 성인 숭배는 비그리스도교 신자가 이해하기 힘든 요소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태어난 직후 세례를 받을 때 수호 성인을 정한다. 그리고 수호 성인의 보호하에 일생을 산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숭배하는 진정한 실체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일상의 생활에서 보호자,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은 수호 성인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인 숭배 제도에 대해서 저자는 그것이 게르만의 토착 신앙, 로마의 정령 숭배 그리고 근동의 이교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정통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읽으면 매우 거북한 진술이다. 저자가 이런 비판을 무릅쓰고 객관적인 서술을 시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또한 저자는 성탄절, 중세의 각종 축일 등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다신교 문화, 기층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필자는 저자가 원래의 기획 의도 대로 ‘중세는 신앙이 지배한 시대였는가?’라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책의 중반부 이후에 중세의 민중 문화, 민중 그리스도교, 민중 문화와 엘리트 문화의 갈등과 같은 주제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

래야 중세 성기에 그리스도교가 끼친 영향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에 대한 서술이 없었다. 이런 항목의 부재하기에 저자가 원래의 서술 목적을 제대로 성취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

이 책을 읽으면서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서술의 난이도다. 저자는 독자의 지적 수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 책을 읽을 것이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술이 어려울 때가 많다. 가령 50쪽에 시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 공의회, 종교 회의, 시노드와 같은 용어가 계속 나오기에 간략하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61쪽에는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폴리 주교의 서열 문제가 나온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로마가 제국의 첫째 도시로서 첫째 서열을 보유하고지만,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새로운 로마이자 둘째 도시이기에 둘째 서열을 보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책은 ‘언뜻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두 도시가 동일한 서열에 있다는 의미였기에 로마 수위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로 인해 교황은 이 결정의 수용을 2년이나 유보했다.’라고 서술하였다. 필자는 첫째 서열과 둘째 서열이 어떻게 동일한 서열을 의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언가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서술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불친절한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145쪽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의 니카 반란을 서술하고 있다. 이때 ‘청색당’, ‘녹색당’이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485쪽에는 동서 교역로를 북방 노선, 남방 노선, 중앙 노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노선이 어떤 경로인지 사전 지식이 없으면 파악하기 힘들다. 486쪽에 지도가 나오는데 지도에 화살표로 표시해 주었으면 좋았겠다. 물론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사진을 옆에 두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책을 참조해 가면서 읽어야 한다. 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공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약간의 불친절함은 독자가 감내해야 할 요소다.

아쉬운 점에서 필자가 지적한 사항들은 괜한 생트집에 가깝다. 서평이기에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치기의 발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서술 내용의 정확성, 서술 시각의 공정성,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는 저자의 통찰력에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걸작이다. 마지막으로 달고 싶은 사족이 있다. 535쪽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이다. 대개 초판에 있을 법한 오타자 하나를 찾지 못하였다. 저자와 출판사의 공력에 다시 감탄했다. 그리고 인문학의 기본은 글쓰기다. 서양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특히 글쓰기가 약하다. 연구자들이 서양 언어에 익숙하고, 서양의 문헌을 보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대부분 연구자들이 번역투의 문장을 구사한다. 그 때문에 서양사 연구자들이 쓴 글은 읽기 난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 사실 필자는 이 책의 저자와 오랜 친분을 갖고 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왔을 때부터 교류하였다. 귀국 직후 쓴 그의 글에는 번역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완전한 한국말로 되어 있다. 적절하게 단어를 구사하고 짜임새 있게 문장을 구성하여 읽기가 매우 편하다. 매우 긴 작품이기에 처음에는 언제 다 읽을까 주저했다. 그렇지만 읽기 시작한 후에는 책을 놓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이 책이 우리나라 서양사 연구에서 획을 긋는 수작임을 강조하면서 서평을 마친다.